

## 중국의 10.5 계획 첫 해의 섬유산업 5개 과제

중국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제10차 5개년 계획 첫 해인 2001년에 섬유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5개 과제를

- ① 면방업계의 구조조정이 후퇴하는 것을 저지하고
- ② 모방업계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 ③ 쿼터의 차등배분에 의하여 수출을 강화하고
- ④ 면화가격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안정시키고
- ⑤ 걸감용 텍스타일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 위원회는 2001년의 세계 섬유무역의 전망을 살펴볼 때 구미의 경기가 전년에 11%성장에서 8%성장으로 둔화하여 그 동안 중국의 대미수출 세어가 어패럴에서는 온두라스나 방글라데시에게 추월되고, 면직물은 파키스탄에 추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더구나 국내시장은 공급과잉상태가 계속될 것이므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면방은 1999년까지 900만추 이상의 노후설비를 폐기하고, 100만명 이상의 종업원을 삭감한 효과가 있어 면방기업의 실적이 회복하고 있는데, 폐기한 설비가 다른 곳에 이설(移設)되어 가동되는 등 중복건설(重複建設)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작년에 국무원으로부터 전달된 취지를 철저히 지켜, 지방 정부의 대외경제 무역위원회에 책임자를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작년에 24만추를 폐기한 모방은 업계 전체로는 1억 천4백만원(元)의 흑자를 올렸지만, 적자기업만을 합산하면 여전히 1억 5천4백만원의 적자로 되어,

「중국방직 산업의 최대문제」라고 판단되어 금년에는 10만추를 더 폐기할 것이다.

쿼터는 관례와는 무관하게 품질수준 등의 수출경쟁력이 강한 기업에게 중점적으로 배분한다. 면직물 수출의 경쟁력이 약해진 원인중의 하나는 국내 면화 가격이 뛰어올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면화의 공급을 적절히 컨트롤하여 상황을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어패럴의 수출경쟁력에 비하여 겹감 등 텍스타일의 품질이 떨어져 있어, 염색가공 등의 기술개조를 중요시하고, 수출용 어패럴에 중국산 생지 사용비율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 섬유산업의 매크로(macro)정책은 그 동안 국가 방직공업국이 담당해 왔지만, 지난 2월에 해체되어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은 방직공업협회에서, 최소한의 관리기능은 대외경제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